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고현명 부장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자유하는 법 (빌 4: 10-13)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피: <u>hkb.church</u>

지난주설교요약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15-22)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배신한 자리에, 우리의 실패한

일으켜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자리에,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찾아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일어나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은 베드로에게 "내가 처음 너를 불렀던 그때와 같이 다시 그리고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과거 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물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네가 나를 사랑했었냐?" 라고 물었다면 베드로가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가 아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현재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 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믿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과 함께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기에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죽음 후에 어떤 상이 있는지? 죽음 후에 어떤 심판과 천국,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죽음의 끝을, 천국과 지옥을, 그 복음을 알려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랑, 그 사명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세상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 2. 실시간 새벽예배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 시) 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대면 예배 토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행정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발열 체크등 준수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 모임과 식사는 없습니다.
- 4. 성찬식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부장 모임** -6월 13 주일 오후 12 시에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 6. **초원 모임** -6월 20일 주일 오후 12 시에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u> </u>				
	6/06	6/13	6/20	6/27
대표기도	고현명	유영민	심영민	김영란
헌화성도				
봉사당번				

예배축석자 및 허금

1 1 2 1 1 7 2 2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230.00			

해사미미이

생사 및 모임		
6-8 월	야외예배	날짜 미정(주일)
9 월	교회창립기념예배	9 월 5 일 (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샬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u>각가정에서</u>		아가며 모이는 ? !습니다.	선을 원칙	으로 하고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	나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지	나	510. 909-8612	유	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0	H	510. 318-0747	정주	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전	<u> </u>	510. 415-0671	장결	절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0	4	510. 340-1014	나순	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	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Ż	510. 915-5578	K 선.	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u>}</u>	510. 468-4720	김	정림 (탄자니아)
샬롬목장	조현숙/조정욱	<u> </u>	510. 396-6952	조형	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셩경공부-12 주				12 주	

되었습니다.

청사진이 아닌 나침반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을 품게 되면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며 염려가 사라질까요? 우리의 삶이 더좋아질까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만일 자신의 성공을 미리 안다면 나태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미리 안다며

민수기 13 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명의 정탐군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함과 확신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10 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의보고를 듣고 더 큰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과 원망, 비난으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우리는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청사진이 아닌 나침반을 허락하십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는 나침반을 보며 한걸음 한걸음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방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많은 것이 아닌 매일 하루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루 필요한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어제 성공한 사람에게 두배의 내일을 주시고, 어제 실패한 사람에게 절반의 내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어제 하루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과거의 영광에 자만이나 과거의 실패에 낙심하여 내일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18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불순중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의 나침반에 의한 순종함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사단이 주는 염려와 근심, 욕심과 미움, 원망과 비난에 사로잡혀 내가 원하는 청사진대로 만들려는 오만함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청사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나침반을 들고 하루하루, 한걸음 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주	목장별각가정
		_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현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샬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